

복서셈어문학과 비제사장계 문학사 관점에서 바라본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연구

최종원(서울신대)

1. 들어가기

전도서의 지혜는 어디에서 왔는가? 매우 오래전부터 전도서의 지혜에 대한 연구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초기 헬레니즘 문헌과 연계하여 비평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¹ 전도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문학비평적 접근 (및 편집비평적 접근), 전기적 접근, 양식

1 참조. Elke Blumenthal, "Die Rolle des Königs in der ägyptischen und biblischen Weisheit",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H.-P. Müller(eds.), *Weisheit in Israel* (Münster: Lit Verlag, 2003), 1-36; Wolfgang Röllig, "Die Weisheit der Könige in Assyrien und Babylonien,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H.-P. Müller(eds.), *윗글*, 37-53; Hans-Peter Müller, "Kohélet im Lichte der frühgriechischen Philosophie",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H.-P. Müller(eds.), *윗글*, 67-80. 몇 가지 고대 근동 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언급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리처드 J. 클리포드, 「구약학 입문시리즈 4: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³), 136-138. 원제는 R. J.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Interpreting Biblical Textes Series) (Abingdon: Abingdon Press, 1998). 여기서 '길가메시' 언급은 '낮과 밤을 즐기라'고 언급한다. 'Carpe diem'은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의 견해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p. 137).

비평적 접근, 그리고 인용이론 접근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² 다양한 접근방법이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전도서의 해석이 간단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하여 적어도 전도서는 다섯 가지의 주제로 연구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다.³ (1) 전도서의 구조, (2) 사회 문화적인 문맥, (3) 정경과의 비교, (4) 유대와 기독교의 해석사 문제, (5) 철학과 신학의 관계 접근.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구조는 편집사적 관점에서 표제(1:1)로 시작하고 맺음말(12:9-14)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도서의 내용은 ‘전도서의 틀’로서 ‘헛됨’(1:2)으로 시작하고 ‘헛됨’(12:8)으로 끝을 맺는다.⁴ 이 주제어 ‘헛됨’은 전도서 본문의 처음과 끝을 꼴 짓는 테두리 역할을 한다. 전도서의 이러한 틀과 테두리는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의미 있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도서 연구는 전도서의 구조와 관련된 연구가 본문에서 흐르는 전체 사상의 형성을 해석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내용상 전도서는 삶의 자세를 ‘헛됨’(헤텔)으로 표현하는데, 일부

2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한 옮김 (예관:분도출판사, 2012), 662-665. 최근 인용이론에 대한 비판은 다음을 참고하라. Z. Kustár, "Neue-Sichten-neue Schichten. Skizze eine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Kohelet", J. Kotjatko-Reeb, u.a. (eds.), *Nichts Neues unter der Sonne? Zeitvorstellungen im Alten Testament* (BZAW 450;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4), 281: "인용 이론이 직면한 문제는 첫째로 이러한 '인용'이 전도서의 '주석'과 구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 구약의 토론 및 토론의 단어와 달리 -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로, 성서 문헌 내에서 이 논증 방법은 - 헬레니즘 비판의 특정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 먼 유추일 뿐이며, 셋째로, 코헬렛이 인용했다고 전해지는 '반대 견해'는 종종 유효한 것보다 더 많다. 하지만 확실히 걸보기에 거부된 것은 아니다. 또한 왜 이 한 권의 책에서는 내용의 불균일성이 내부적 대화 또는 '의도적 모호성'으로 평가되지만, 구약의 다른 글, 예를 들어 욥기에서는 문학적 표징으로 평가되는지 의문스럽다." (자체 번역)

3 L. Schwienhorst-Schönberger(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1.

4 '헤텔(Hebel)'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D. B. Miller,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SBL 2; Leiden/Boston/Köln: Brill, 2002).

학자들은 이 용어에 대한 해석을 회의주의 또는 염세주의 입장에서 해석하지만,⁵ 반면에 살아있음에 대한 실존의 기쁨을 강조하면서(*carpe diem*), 전통적인 신앙의 사고를 재해석하려는 낙관주의로 해석하기도 한다.⁶ 이 두 가지 기본적인 해석은 전도서의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극명하게 갈라진다. 그 문학적 곡선의 변곡점은 전도서 5장 1-7절이다. 이 문단은 종교비판을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 전도서의 종교비판 내용은 이 부분이 유일하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전도서는 후반부에서 ‘즐거움에 대한 촉구’가 강조되어 있다(5:17-19; 9:7-10; 11:9). 이러한 흐름은 전도서의 중심 사고를 제안하는 몇 가지 중심 주제어를 통하여 새롭게 제안되고 있다. 그 주제어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았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다”, “일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로 정리할 수 있다.⁷ 특별히 “해 아래서”라는 표현은 전도서에 전체적으로 29회나 등장하면서, 살아있음에 대한 중심어구로 소개한다. 이 주제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표현은 매우 반복적이면서 주제 동기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⁸ 또한 “내 마음속으로 말하다”라는 표현은 전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전반부(1:16; 2:1; 2:15; 3:17, 18)에만 등장하며 일인

5 정치적인 분야에서 염세주의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M. R. Sneed, *The Politics of Pessimism in Ecclesiastes. A Social-Science Perspective* (SBL; Atlanta: SBL, 2012).

6 최근에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한 간략한 정리는 다음을 참고하라.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제42집 (2011년 12월), 10-11; 구자용,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제43집 (2012년 3월), 82-104; 김홍현, “전도서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 두 개의 열쇠어와 전도서 9장 7-10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90집 (2023년 12월), 280-308.

7 윤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M. Köhlmoos, *Kohélet. Der Prediger Salomo* (ATD 1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59-60.

8 E. Lipinski, “šæmæs”, H. J. Fabry & H. Ringgren (eds.),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VIII* (Stuttgart/Berlin/Köln: Verlag W. Kohlhammer, 1995), 314.

칭 완료 형태(qatal)로 소개되고 있다. “일반이다”(hrqm)라는 주제어는 전반부(2:16; 3:19)와 후반부(9:2, 3)에 각각 균형적으로 나타난다. 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주제어는 중심부(5:7)를 중심으로 후반부에 위치하면서 어지럽고 복잡한 삶의 지혜를 비판하면서 신앙의 지혜로 통일하고 있다. 이 지혜는 보편주의 입장에서 정리되고 있고, 구원사의 입장보다는 창조신학을 중심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⁹

본 논문은 구성사적 접근 방법을 유지하면서, 전통사적으로 전도서 전체 구조가 특별히 지금까지 잘 소개되지 않은 복서셈어 문화권의 영향아래 있음과 특별히 비제사장계(non-P)의 문학 양식과 매우 가까이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¹⁰ 전도서의 학교 지혜는 비제사장계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전도서의 연대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내용면에서 전도서가 지혜 특징을 고대 그리스 문화권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¹¹, 전도서는 오히려 복서셈어 문화권과 비제사장계 신앙의 구조를 통하여 저변에 흐르는 유대교의 전통적인 지혜의 문제(행위-결과로서 화복)를 헬레니즘과의 마찰 속에서 자신만이 가진 특유의 사고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9 M. Witte, “Das Koheletbuch (Der Prediger Salomo),” J. Ch. Gertz (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UTB; Vandenhoeck & Ruprecht, 2007), 462-463.

10 구성사와 전통사 비평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지음, 「구약 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 (서울: CLC, 2011).

11 고대 그리스 사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R. Braun, *Kohelet und die frühhellenistische Popularphilosophie* (Walter de Gruyter/Berlin/New York: De Gruyter, 1973); Ch. Uehlinger, “Kohelet im Horizont mesopotamischer, levantinischer und ägyptischer Weisheitsliteratur der persischen und hellenistischen Zeit”,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155-247; R. Bohlen, “Kohelet im Kontext hellenistischer Kultur”,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 *위트글*, 155-247;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57집 (2015년 9월), 99-124.

2. 전도서에 대한 연구사

전도서의 구조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장들을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중심 어구와 표현들을 통하여 매우 불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지속적인 연구로 인하여 전도서의 구조는 매우 정교한 하나의 예술 작품과 견줄 수 있는 문학작품으로 점차 인식되게 되었다. 전도서는 하나의 개별적인 잠언뿐만 아니라 교훈의 시(1:3-11; 3:1-9; 12:1-7), 설화체 산문(1:12-2:26), 경험의 보도(3:16 ff.; 4:1 ff.; 7:25 ff.; 9:11 f., 9:13 ff.), 경위의 연구(4:13-16) 등 다양한 문체들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문학의 특별한 구조를 통하여 그 이해의 범주들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전도서의 모순과 긴장을 해결하기 위해 문학비평적 관점, 전기적 관점, 양식비평적 관점, 인용이론적 관점, 그리고 해석이론적 관점에서 발전되어 왔다.¹² 오늘날까지 전도서의 구조가 일치된 의견이 없으나,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전도서의 편집비평과 구성된 원칙(Kompositionsprinzip)을 발견하기 위하여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¹³

델리취(F. Delitzsch)는 전도서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양한 문장들을 모은 구조로 수집물의 집합체라고 보았다.¹⁴ 그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첫 부분은 전도서 1-3장으로, 두 번째 부분은 4-12장으로 분류했다. 이 구조는 이후로 많은 학자들에게 도전을 받게 된다. 유사한 의견을 받아들인 갈링(K. Galling)은 수집물을 뛰어넘어 조직적으로 확장된 구조를 증명하면서 전

12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이종한 옮김), (왜관읍: 분도출판사, 2012), 662-665.

13 Z. Kustár, "Neue-Sichten - neue Schichten. Skizze eine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Kohelet", 279-292.

14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helet* (HTHKAT;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2004), 46.

도서는 단순히 문장들을 수집하여 모은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의 편찬자가 있음을 소개하게 되었다.¹⁵

전도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은 짐머리(W. Zimmerli)에 의해 제안되었다. 그는 전도서가 내부적으로 긴밀한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헛됨’을 1장 2절과 12장 8절을 문학 기법에서 기술적으로 사용하는 중심 주제어(Leitwort)로 이해한다. 그리고 12장 9-11절을 1차적인 추가 본문, 12장 12-14절을 2차적인 추가 본문으로 파악했다. 따라서 그는 각 단위의 내용을 살펴보고 주제의 통일성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게 된다. (1) 1장 3-11절, (2) 1장 12절-2장 26절, (3) 3장 1-15절 (4) 3장 16절-4장 3절 (5) 4장 4-12절 (6) 4장 13-16절 (7) 4장 17절-5장 6절 (8) 5장 7-8절 (9) 5장 9절-6장 12절 (10) 7장 1-14절 (11) 7장 15-22절 (12) 7장 23-24절 (13) 7장 25-29절 (14) 8장 1-8절 (15) 8장 9-15절 (16) 8장 16절-9장 12절 (17) 9장 13절-10장 3절 (18) 10장 4-20절 (19) 11장 1-8절 (20) 11장 9절-12장 7절까지 한 단위로 구분한다. 이에 특별히 전도서 1장 12절-2장 26절이 거대한 인지곡선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논증했다.¹⁶ 그 결과 이후에 시도되는 다양한 구조들이 등장하면서 고대 근동과 헬레니즘의 철학사상을 비교 연구하면서 새로운 구조를 발견하게 되었다.

전도서에 대한 구조는 거시적으로 주제어와 수비학에 의한 분류와 교차대칭에 의한 분류로 나눌 수 있다.¹⁷ 전자에 해당하는 세오(Ch.-L.

15 K. Galling,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²1969), 76.

16 W. Zimmerli, *Das Buch des Predigers Salomo* (ATD 16/1,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127.

17 이 견해는 클리포드의 지혜서에 따른 필자의 자의적 해석이다. 참조. 리처드 J. 클리포드, 「구약학 입문시리즈 4: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³), 142-143.

Seow)는 전체적으로 전도서를 주요한 두 부분을 나누고 각 부분에 두 가지 부제를 적용하여 구분하고 있다.¹⁸ 이 구분은 오늘날 다양한 구조로 변형되어 적용되고 있다.

	1:1	표제
		제1부
A	1:2-4:16	반응: 모든 것은 잿수 없고 신뢰할 수 없다.
B	4:17-6:9	윤리: 서로 불확실
		제2부
A	6:10-8:17	반응: 모든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B	9:1-12:8	윤리: 위험과 죽음에 직면함.
	12:9-13a	마무리(epilogue)
	12:13b-14	추가 본문

폭스(M. V. Fox)는 세오에 비해 첫 부분(1:2-4:16)을 세밀하게 구분한다. 그는 1장 2-11절을 도입부 시로 구분하고 11장 7절에서 12장 8절까지 마무리 시로 구분하여 문학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본다.¹⁹ 그의 구분을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1	도입부 시
I	1:12-6:9	코헬렛의 삶의 시도 (삶의 조사)
II	6:10-11:6	코헬렛의 결과에 따르는 것들
	6:10-12	소개하기

18 C.-L. Seow,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Religion, 1997), 46f.

19 M. V. Fox, *Qohelet and His Contradictions* (BLS 18; Sheffield: Almond Press, 1989), 155-156.; M. V. Fox,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xxlesiastes* (Grand Rapids: Cambridge: Wipf & Stock Publishers, 1999), 148.

	A. 7:1-8:17	인간은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B. 9:1-11:6	인간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11:7-12:8	끝맺음 시
	12:9-14	맺음말(epilogue)

폭스에 의해서 어느 정도 도입부와 끝맺는 단락이 점차 분명해진다. 처음과 끝 부분의 좀 더 명확한 구분이 제안되어 전도서의 통일성 있는 문학구조가 단단히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미 이전에 짐머를리가 제안한 1장 12절에서 2장 16절의 한 단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로핑크(N. Lohfink)에 의해서 수정되었는데, 그는 교차대칭(Chiasmus) 구조로서 전도서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1장 12절부터 3장 15절까지를 하나의 통일된 단위로 분류한다. 그는 1장 2-3절과 12장 8절을 하나의 문학 단위의 틀로서 이해했고, 전체적인 중심부 내용을 1장 4절부터 12장 7절까지로 구분했다. 그의 연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그가 제시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소개할 수 있다.²⁰

A	1:2-3	틀
B	1:4-11	우주론(시)
C	1:12-3:15	인간론
D	3:16-4:16	사회비판 I
E	5:1-7	종교비판(시)
D'	5:8-6:10	사회비판 II
C'	6:11-9:6	일반 지혜 비판
B'	9:7-12:7	윤리학(마지막에서, 시)
A'	12:8	틀

20 N. Lohfink, *Kohelet*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10.

이 구조에 따르면, 전도서는 하나의 통일된 문학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중심부는 성전(“하나님의 집”)을 주제로 기록하고 있고, coram Deo(“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실존주의로 해석하여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을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지혜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 문단(5:1-7)에서 지혜로운 자의 종교적 삶(5:4-6)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5:7). 이 단락은 전도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짐머러리와 로핑크의 시도는 점차 전도서의 구조를 이해하는 출발점으로 이해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 도입부와 끝맺음은 각각 1장 2절과 12장 8절이 같은 주제어로 나열되고 있어서, 하나의 문학 단위의 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 인정되고 있다.

룩스(L. Lux)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며, 그는 로핑크의 교차대칭구조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여 제시한다.²¹



21 R. Lux,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26. 한글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루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구자용 옮김),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룩스 역시 전도서 1장 12절에서 11장 8절까지 두 부분으로 내용을 분리하여 제안하고 있다. 다만 이 구조에서 그는 5장 1-7절의 “하나님 앞에서”(2절, coram deo) 지켜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7절) 하는 것으로 마치는 이 문단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

이에 크뤼거(Krüger)는 1장 2절과 12장 8절을 금언(Motto)으로 구분하고, 1장 1절은 표제(Überschrift)로 12장 9-11절은 발문(Nachwort)으로 추가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았다.²²

1:1	표제 (Überschrift)
1:2	금언 (Motto)
1:3-12:7	책의 내용
12:8	금언 (Motto)
12:9-11	발문 (Nachwort)

크뤼거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세분화하여 1장 3절에서 12장 7절을 다섯 문단으로 설명하고 있다: (1) 1:3-4:12 (2) 4:13-5:8 (3) 5:9-6:9 (4) 6:10-8:17 (5) 8:1-12:7.²³ 크뤼거는 두 번째(4:13-5:8) 부분만 교차대구로 설명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주제 내용으로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전도서는 주제어구와 내용 면에서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 교차대구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구조가 제안하는 신학적 사고와 주제는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22 Th. Krüger, *Kohelet(Prediger)* (BKAT X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19.

23 Th. Krüger, *Kohelet(Prediger)*, 20-21.

3. 전도서의 교차대칭구조

전도서의 교차대칭구조는 로핑크와 크뤼거 등에 의한 제안으로 좀 더 세분화하여 그 구조를 문학단위별로 나누어 설계 도안을 그려볼 수 있다. 이 도안에 주제별로 구분한 3장 15절과 16절 이하를 재점검하면 3장 15절 이후 16-17절은 전도서에서 새로운 문단으로 시작할 때 사용하는 표현으로 시작한다(“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그리고 16절은 17절과 내용상 이어지며 두 번째 전도서의 중심 표현인 “내 마음속으로 말하다”가 사용된다. 이어 18절에서 다른 주제로 전환된다. 18절의 내용은 22절까지 통일된 문단을 이루고 있고 내용상 1-15절의 내용과 연결될 수 있다. 이 문단은 19절에서 “일반”(미크레)이라는 용어를 명시하면서 로핑크가 구분했던 우주론의 문단이 끝난다. 여기서 “일반”(미크레)의 문학적 위치를 적용해 보는 것은 전도서의 전체 대칭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 결과 인간론 부분에서 “일반”의 위치는 일반지혜의 “일반”과 대칭구조로 위치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²⁴

5장 1절은 특별히 “너” 이인칭으로 시작하며 ‘하나님 경외’ 지혜 사상을 강조한다. 5장 1-3(7)절은 내용상 유일한 종교 비판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일시한다. 이를 중심으로 필자는 전체 구조를 세분화하여 먼저 표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후 지속적인 구성사적 문제를 언급하고자 한다.²⁵

24 이 부분은 아래 03. 03) 교차대칭구조로서 “일반(미크레)의 역할과 그 영향” 문단에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25 전도서의 본문은 개역개정을 중심으로 본문의 문단을 나누었다. 이 표는 학자들의 견해들을 종합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며, 이후 단원에서 문단을 구성한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01:01		표제 (Überschrift)	발문 (Nachwort)		12:09-14
01:02		금언 (Motto)	금언 (Motto)		12:08
01:03-11	해 아래 새 것 없다	우주론 (시)	윤리론 (시)	5) 청년,창조주 기억 4) 젊음의 기쁨 3) 오늘을 유익하게 2) 지혜의 강약 1) 즐거운 삶 요청	12:01-07 11:09-10 11:01-08 9:11-10:20 09:07-10
01:12-18	1) 지혜의 헛됨 1	인간론	일반지혜 (이데올로기) 비판	11) 미크레 의인/악인	09:01-06
02:01-11	2) 지혜의 헛됨 2			10) 참된 지혜 10	08:16-17
02:12-17	3) 지혜의 헛됨 3			9) 참된 지혜 9: 하나님 경외 비판	08:09-15
02:18-23	4) 지혜의 헛됨 4			8) 참된 지혜 8	08:01-08
02:24-26	5) 지혜의 헛됨 5			7) 참된 지혜 7	07:23-29
03:01-08	6) A(범사의 때)			6) 참된 지혜 6	07:19-22
03:09-15	7) 하나님 경외			5) 참된 지혜 5 하나님 경외 비판	07:15-18
03:16-17	1) B 약/정의			4) 참된 지혜 4	07:11-14
03:18-22	2) A'(미크레)			3) 참된 지혜 3	07:08-10
04:01-03	3) B'학대자/악			2) 참된 지혜 2	07:05-07
04:04-06	4) 헛됨 1	1) 참된 지혜 1	06:10-07:14		
04:07-12	5) 헛됨 2	사회 비판 II	6) 불충족된 욕망	06:07-09	
04:13-16	6) 헛됨 3		5) 불행한 삶	06:01-06	
			4) 하나님의 선물	05:18-20	
			3) 재산의 손실	05:13-17	
			2) 재산의 양면성	05:10-12	
			1) 정의와 공의	05:08-09	
		05:01-07 종교 비판 "하나님 경외"			

전도서 5장 1-7절은 전도서에서 유일하게 제의(서원예물)와 관계된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전도서의 변곡점인 5장 1-7절을 지나면 같은 주제로 다양한 문단의 본문들이 구성되어 있다. 이 작은 본문들은 유사한 주제로 사회비판과 지혜의 헛됨과 대칭되는 “일반 지혜 비판”, 그리고 인간론과 대칭되는 윤리론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결과적으로 5장 1-7절을 중심으로 각각의 구조는 매우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전도서의 저자 혹은 구성자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전도서의 종교비판은 전도서에서 유일하며, 다른 비판 내용보다 가장 중요시하는 문제였음을 구성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1) 교차대칭구조로서 “일반”(미크레)의 역할과 그 영향

룻기 2장 3절과 사무엘상 6장 9절과 20장 26절에서 ‘미크레’(hrqm)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하며 오직 신명기역사가의 본문에만 등장하고 있다. 전도서에서 소위 “일반”으로 번역된 ‘미크레’(hrqm)는 전도서 3장 19절과 9장 2절에서 각각 3회 사용하며, 9장 3절에서 1회 사용하면서 9장 1-6절의 한 단위의 문단 안에서 형성하고 있다. 이 용어는 주로 인생의 삶과 죽음의 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전도서에서 구성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구성사적으로 전도서 3장 19절의 ‘미크레’(hrqm)는 3장 16-22절 문단 안에서 인생과 짐승의 구분이 없음을 표현하는 회의주의 입장으로 소개된다. 이 부분의 구조를 로핑크의 구조와 비교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로핑크와 슈빈호스트-손베르거(L. Schwiener-Schönberger)의 제안에 따라, 로핑크는 전도서 1장 12절-3장 15절을 하

나의 문학 단위로서 교차대칭구조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²⁶

A	1:13-15
B	1:16-18
C	2:1-2
C'	2:3-10
B'	2:11-26
A'	3:1-15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3장 15절과 16절 이하의 문단이 분명한 경계를 짓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크뤼거는 3장 10절-4장 12절을 한 단위로 나누면서, 사회적으로 공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관점에서 3장 16-21절과 4장 1-12절로 분명하게 구분한다. 크뤼거의 전체 구조(1:3-4:12)의 관심사는 전반부에서 “이익(1:3)-시간(1:4-11)-반응(1:12-2:26)”의 주제로 나열되듯이, 후반부는 “시간(3:1-8)-이익(3:9)-반응(3:10-4:12)”의 순서로 나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²⁷ 크뤼거의 주장은 매우 의미 있다. 특별히 1장 12절 이하의 ‘반응’의 본문은 14절에서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ראיתי תחת השמש)라는 일인칭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분명한 반응의 표현을 언급한다.²⁸ 이 구도 안에서 1장 16절, 2장 1절, “내 마음속으로 말하다”와 2장 3절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다”로 반응의 깊이가 자신의 내부로부터 일어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26 N. Lohfink, “Das Koheletbuch: Strukturen und Struktur”, L. Schwienhorst-Schönberger (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80-82.

27 Th. Krüger, *Kohelet(Prediger)*, 106-107.

28 전도서의 구문론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Minsu Oh,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 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üchern Proverben und Kohelet* (Lit 13; Münster: Lit Verlag Dr. W. Hopf, 2012), 59-90.

후반부인 3장 10절 이후의 ‘반응’은 “내가 보았다”(ראיתי)로 시작하며, 3장 16절에서 “그리고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והנה אראה תחת השמש)로 반응하고 이어 18절에서 “내 마음속으로 말하다”, 4장 1절에서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았다”로 이어지고 4장 7절에서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보았다”로 언급한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주제의 흐름으로 살펴보면, 3장 16-17절의 반응은 의인과 악인에 대한 재판의 허무함이 1장 14절의 반응과 연결되고 있으며, 동시에 4장 1-3절과 체인 형식으로 연결된다. 또한 8장 9-15절에서 미래의 재판을 소개하는 것과 유사한 의미로 교차대조 본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²⁹ 특히 3장 16절의 문구는 문단의 형태에 따라 1장 14절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³⁰ 이로써 새로운 내용과 문단이 시작된다.

동시에 3장 18-22절의 반응은 3장 10-15절과 연결되고 있다. 여기서 3장 19절(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험)은 3장 11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3장 20절(다 흠으로 돌아가다)은 3장 11절(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 또한 3장 22절(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이 그의 몫이므로 더 나은 것이 없다)은 3장 12-13절(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과 이어진다. 이런 구조를 다음의 내용으로 다시 정리해 보자.

A	3:10-15	(반응)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선물
B	3:16-17	(반응) 해 아래에 있는 재판으로 선과 악을 정하지 못함 (왕)

29 K. Dell and W. Kynes, *Reading Ecclesiastes Intertextually* (JSOTS 587; Bloomsbury: T & T Clark, 2014), 65.

30 이 부분은 아래 03. 03) 전도서의 “해 아래에서”의 역할과 그 영향 문단에서 다시 소개하고자 한다.

A'	3:18-22	(반응) 인생들의 일과 헛됨 (hrqm)
B'	4:1-3	(반응) 해 아래에 있는 학대자와 피학대자 사이의 부정함 (권세자)

이 구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미크레(hrqm)의 본문(3:18-22)이 3장 16-17절이 아니라 3장 1-15절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크뤼거는 16절의 “그리고 또 내가 보았다”라는 경험 어구가 10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론하지만³¹, 16절의 표현은 1장 14절과 관련이 있고, 4장 1절과 연결된다. 1장 14-18절 문단의 구조는 3단계로 진행된다.

단계	본문	내용	중심 표현
1단계	1:14	경험의 가치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2단계	1:16	판단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다”
3단계	1:17	판단의 결과	“내가 깨달았다”

3장 16-17절과 4장 1-3절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단으로 3단계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계	본문	내용	중심 표현
1단계	3:16	경험의 가치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
2단계	3:17	판단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다”
3단계	4:1-3	(변형된) 판단의 결과	“내가 다시 살펴 보았다. 보라...(사건)”

로핑크의 교차대칭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일반 지혜 비판 본문(6:11-9:6)의 마지막 본문(9:1-6)에 나타난 미크레(מִקְרֵא)의 의미

31 Th. Krüger, *Kobelet(Prediger)*, 170.

를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게 한다. 이것은 미크레(מִקְרָה) 본문이 5장 1-7절을 중심으로 각각 인간론 본문(1:12-3:15)과 일반 지혜 비판 본문(6:11-9:6)의 마지막에 위치하여 각각 작은 마무리 본문에서 결론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미크레(מִקְרָה)는 5장 1-7절을 중심으로 좌우의 본문을 균형 있게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C	1:12-3:15	인간론: 헛됨	(מִקְרָה)
B	3:16-4:16	사회비판	
A	5:1-7	여호와 경외	
B'	5:8-6:9	사회비판	
C'	6:10-9:6	일반지혜 비판: 즐거움	(מִקְרָה)

특히 교차대칭구조로 볼 때, 전도서의 전반부(1:12-4:16)는 “우주론”에서 “사회비판” 주제로 전환할 때, 본문의 의도적인 연결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서셈어 비문인 스피르(Sfire) 조약에서도 발견된다.³² 스피르 비문의 첫째 본문(Sfire I.A.) 35b-42줄은 매우 현저한 도식을 갖춘 사슬구조(Kettenstruktur)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단의 특별한 문장구조는 “마치...처럼”(Gleichwie)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다음 문장에서 간접명령형(Jussive)이 오고, 다시 “마치...처럼”(Gleichwie)의 문장이 계속 뒤따르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³

32 스피르 비문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최종원, “복서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bv]), 『Canon & Culture』 제11호 (2012년 봄), 123-152.

33 참조. J.-W. Choi,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inner, 2011), 28-30.

A	25b-35a	간접명령형 (Jussive)
B	35b	"마치 ...처럼"(Gleichwie)
A	36b-37a	간접명령형 (Jussive)
B	37b	"마치 ...처럼"(Gleichwie)

이 구조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17장으로 주제가 전환되는 본문에서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다. 신명기 16장 18-20절은 재판과 관련한 주제로 소개되지만, 16장 21절-7장 1절로 넘어가는 부분은 제의 주제로 나타나면서, 각각의 주제가 불연속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17장 2-7절은 재판과 관련한 주제가 다시 나타난다. 이 구조를 정리하면, 16장 21절-7장 1절의 제의 주제 본문은 16장 1-17절의 제의 주제 본문(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제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 수 있다.³⁴

A	16:1-17	제의
B	16:18-20	재판
A'	16:21-17:1	제의
B'	17:2-7	재판

신명기 16장 18-20절에서 재판과 관련한 주제는 지혜자와 의인 그리고 공의라는 주제와도 연결된다. 이 주제들은 계속적으로 17장 2절 이하에서 이어지고 있다. 신명기 17장 2절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며 악한 자는 공동체에서 처형될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소위 신명기의 비아르타법(bi'arta-law)을 통하여 반영되고 있으며, 이

34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114-115.

법은 이스라엘 사회를 악(אָר)으로부터 보호하고(MT 13:6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지속가능함을 유지해 줄 것이다.³⁵

신명기는 악과 정의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계약 양식으로 읽을 수 있는 신명기의 진술은 전도서의 의와 불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구도로 변형되어 이해할 수 있다. 신명기가 내면과 외연의 ‘악’을 공동체에서 제거함을 강조한다면, 전도서 역시 개인화된 내면과 외연의 ‘악’에 대하여 경계함을 강조한다. ‘악함’은 헛된 것이며 하나님은 선악을 재판하실 것이다. 신명기는 선악을 분별(בִּינָה) 하지 못하는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신 1:39)에게 계약의 양식인 순종과 불순종을 통하여 교육하는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면, 전도서(11:9; 12:14)는 하나님이 그 선악을 재판하실 것이다.³⁶ ‘인과응보의 교리’를 중요시하는 계약 사교의 의미를 지닌 전통적인 지혜사상은 전도서에서 ‘헛됨’으로 재평가된다. 전도서의 세계는 그 전통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있다.³⁷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오경에서 비제사장 본문인 에덴동산 이야기에서 시작한다. 창세기 2장 9절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명기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민수기 24장 13절 “발락 이야기”에서는 이방인에게조차 ‘선악을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이 모습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소개하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기

35 최중원,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76집 (2020년 6월), 204-230.

36 ‘선악을 재판하다’라는 어구는 히브리어 ‘אָר(동)+ב(전)+מִשְׁפָּט(명)’로 이루어졌다. 전도서(Hiph.) 이외에 이 어구는 욥 9:32(Qal); 14:3(Hiph.); 22:4(Qal); 시 143:2(Qal); 사 3:14(Qal) 등에서 기록되고 있다.

37 안근조, 윗글, 109. 인과응보적 교리가 제사장들의 율법주의와 제2성전 시대의 지혜자들의 전통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도한다.

결과적으로 ‘일반’(ממקמ) 개념은 ‘하나님 경외’ 사상을 중심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악한 현상에 대하여 과거 전통적인 지혜 사상을 대항하여 새롭게 발전시키고 있다. 이 지혜는 오경의 비제사장 계열의 본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새로운 사교의 충돌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전통 지혜가 위협하지만, 지혜의 중심은 ‘하나님 경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구성사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다.

2) 전도서 구조 안에서 “마음 속으로 말하다”의 역할과 그 영향

크뤼거의 견해에 따라 살펴본 대로 전도서는 반응이라는 주제로 특별히 “내 마음속으로 말하다”(עַם-לְבַי אֲנִי מְדַבֵּר לְאָמֵר)라는 표현을 전반부(1:16; 2:1, 3, 15(2회); 3:17, 18)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이 표현이 사용된 문단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1:16	01:12-18	왕의 반응: 헛됨Selbstaufforderung
2:1, 3	02:01-11	헛됨
2:15(2회)	02:12-17	헛됨
3:17	03:16-17	악과 정의의 무질서의 공존
3:18	03:18-22	인간과 짐승의 죽음이 ‘일반’
9:1	09:01-06	‘일반’ (변형된 표현)

전도서의 이 독백 표현은 마음의 상태, 즉 의도를 공개한다. 이 마음의 상태는 모두 전도서의 ‘헛됨’을 가리키고 있다. 슈빈호스트-쾨베르거와 세오는 이 표현을 고대 근동의 “제왕 이데올로기”(Königsideologie) 사

고로 이해한다.³⁸ 그러나 하나님 경외와의 연결에서 신명기는 오히려 언약 양식으로서 이 사고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내적 독백 형식으로 전통사적으로 신명기 7장 17절, 8장 17절, 9장 4절과 비교 연구할 수 있다. 신명기의 내적 독백으로서 이 문학양식 표현인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כִּי תֹאמַר בְּלִבְבְּךָ)은 조상들과 약속한 야웨 하나님의 맹세와 관련이 있다. 이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것을 대중에게 표현하는 것이므로 비밀스러운 신앙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 이 표현은 신명기에서 공동체의 중요한 신앙을 표현하고 언약의 내적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다.³⁹ 그것은 야웨를 숭배하는 것은 외부적 요건보다는 내부적 요건이 더 중요함을 표현하고자 함이다. 이 주제는 신명기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명기의 표현은 모두 불신앙의 모습을 독백의 형태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명기의 사고와 비교될 수 있는 내적 고백 표현은 이사야 14장 13절, 49장 21절과 예레미야 5장 24절, 13장 22절 그리고 스바냐 1장 12절, 2장 15절 그리고 개선된 표현으로 시편 4장 4-5절 등을 언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것은 조약을 표현하는 북서셈어 본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전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되는 스피르 비문 세 번째 본문(III부)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וְהוּן יִסַּק עַל לִבְבְּךָ וְחָשָׂא עַל שְׁפִתֶיךָ לְהַמְתִּיתִי
“만일 그것이 네 마음에 이르고 나를 제거하겠다고 네가 계획을 세우면, ...”

38 L. Schwienhorst-Schönberger, *Kobelet*, 196.

39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17.

“너의 마음(\$bb1)”은 “계획”(의도)과 병행구로 나타난다. 조건절로 사용되는 이 문장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장이 이어져서 사용되고 있다. “조약을 어긴다”라는 표현은 중요한 의미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복서셈어의 사고는 직접적으로 신명기의 언약 사고로 전해지고, 전도서 역시 그 영향권 아래에서 지혜 사상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전도서의 “해 아래에서”의 역할과 그 영향

일반적으로 전도서에서 “세상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해 아래에서 (שמחה תחת) 보다”라는 문구 사용은 경험된 지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다.⁴⁰ 이 문구는 전도서에서 본문의 내용이 전개될 때, 중심 주제어(Leitmotiv)의 역할을 하고 있다.⁴¹ 전도서에서 이 사용은 총 29회 사용된다. 1:3, 9, 14; 2:11, 17-20, 22; 3:16; 4:1, 3, 7, 15; 5:12, 17; 6:1, 13; 8:9, 15(2회), 17; 9:3, 6, 9, 11, 13; 10:5. 특별히 “해” 단어에 정관사를 붙여 사용하는 것은 “해”의 보통명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구는 한 문단의 시작에 사용하는 패턴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해 아래에서+보다(과거형)”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이 문구는 부사적 의미로 변형되어 제안되는데, “그리고 또”(ועוד)는 부사 עוד(오드)를 사용하지만, 그리고 “다시”(ושבת)라는 문구는 슈브 동사를 사용한다.

전도서에는 “해 아래에서” 이외에도 “하늘 아래에서”(1:13)라는 표현은 땅의 세계를 의미한다. 전도서 5장 2절에서 이미 전도서는 하나님

40 B. Willmes,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heletbuch. Kohelets Ironie und die Grenzen der Exegese* (BThSt 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87, 각주 23번.

41 E. Lipinski, “šæmæš”, 314.

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음을 인식한다. 땅의 세계는 전도자에게 의미 없음(해벨)으로 인식된다. 정리하여 도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이 소개될 수 있다.

절	문단	대칭	내용
1:14	01:12-18	인간론 1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ראיתי את־המעשו תחת השמש (pf.1.Sg.)
3:16	03:09-15	인간론 7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ועוד ראיתי תחת השמש (pf.1.Sg.)
4:1	04:01-03	사회비판 1.3)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 살펴 보았도다 ושבתי אני ואראה ... תחת השמש (wc-Impf.)
4:7	04:07-12	사회비판 1.5)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ושבתי אני ואראה ... תחת השמש (wc-Impf.1.Sg.)
5:13	05:13-17	사회비판 II.2)	큰 폐단이 되는 일을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나니 ... ראיתי תחת השמש ... (pf.1.Sg.)
*6:1	*06:01-06	사회비판 II.4)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던 약이 있었다 (자체 번역) יש רעה אשר ראיתי תחת השמש (rva-부문장)
9:11	9:11-10:20	윤리론 .2)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 ושבתי וראה תחת השמש (Q.Inf.abs.)
9:13	9:11-10:20	윤리론 .2)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גם־זה ראיתי ... תחת השמש (pf.1.Sg.)
10:5	9:11-10:20	윤리론 .2)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יש רעה ראיתי תחת השמש (pf.1.Sg.)

흥미로운 것은 5장 1-7절을 중심으로 “내가 보았다 해 아래에서”의 문단의 시작 문구가 좌우 대칭으로 4번 사용되고 있다. 6장 1절은 이 문구가 rva-부문장에 위치함으로 주문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가 보았다 해 아래에서”의 역할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다음 도표로 정리

해 보자.

(1)	1:14		인간론
(2)	3:16		
(3)	4:1	'학대'	사회비판 I
(4)	4:7		
중심	5:1-7	여호와 경외	
	*5:8	'학대'	사회비판 II
(4)	5:13		
(3)	9:11		윤리론
(2)	9:13		
(1)	10:5		

구성사적으로 “해 아래에서”라는 어구로 문단을 구분할 때, 1장 14절은 “내가 보았다, 해 아래에서 모든 일들을”⁴²(אֶת־הַמַּעֲשֵׂי תַחַת הַשֶּׁמֶשׁ)이라고 시작하며, 그다음 새로운 문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실제로 3장 16절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וְעוֹד רֵאִיתִי תַחַת הַשֶּׁמֶשׁ)로 이어지며, 4장 1절에서 “그리고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 살펴 보았도다”(וְשַׁבְּתִי אֲנִי וְאָרָאָה ... תַחַת הַשֶּׁמֶשׁ)라는 새로운 문단으로 연결된다. 이 문장은 4장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전반부를 완성한다. 5장 1-7절 이후 다시 유사한 패턴으로 5장 13절에서 시작하고 9장 11절과 13절에서 약간의 변형이 이뤄지고 10장 5절은 목적격이 먼저 등장하는 문장으로 시작하여 후반부 “내가 해 아래에서 보았다”의 문단은 완료된다. 이 패턴은 5장 1-7절을 중심으로 교차대칭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이 강조되고 있다.

42 히브리어 어순에 따라 번역하다.

특별히 “해 아래에서”(תחת שמש) 문구는 페니키아 왕의 석관 테두리에 기록된 타브닛 비문에서 발견된다.⁴³ 각각의 내용은 모두 왕의 무덤에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Nr. 13,7	אל יכן זרע בחים תחת שמש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후손들이 더 이상 너에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KAI Nr.13의 왕의 석관묘는 타브닛(Tabnit)이라고 불리며, 주전 6세기말 경의 비문으로 시돈 근처에서 발견되었다.⁴⁴ 페니키아 왕의 장례 문화 속에서 죽음과 삶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 있다.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는 ‘살아있는 자’와 병행하며 ‘죽은 자’와 대조되는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한다. 계속해서 이 표현 “해 아래에서 생명 있는 자(בים תחת שמש)”는 “죽은 영혼”(רפאים)과 대조되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경계를 기록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죽은 영혼’(רפאים)은 치료자와 가까운 의미를 가진다. 창세기 50장 2절에서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했다.” 의원(רפא)은 향료를 처리하는 장례자로서 언급되고 있다. 언어적으로 오경의 ‘치료하다’(רפא)는 장례와 매우 밀접한 환경의 용어로 보인다.

“해 아래에서” 문구는 계속해서 타브닛과 유사한 에슈문나짜르 비문으로 잘 알려진 KAI Nr. 14에서 기록되고 있다. 이 비문은 주전 5세기 초 경의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⁴⁵

43 H. Donner &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17-19, KAI는 이 책명에서 빌려온 약어로 쓰인다.

44 H. Donner & W. Röllig, *윗글*, 17.

45 H. Donner & W. Röllig,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19.

Nr. 14,12	XmX tXΓ ~yxb ratw l[m] rpw
	… 그리고 위로부터 어떠한 열매도 해 아래에서 살아 있는 자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Nr. 14 비문에서도 “해 아래에서” 문구는 ‘살아 있는 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왕권의 계승 문제는 왕의 죽음 이후에도 자신들의 왕가를 계속 지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왕의 후손은 비문 위에 죽은 왕의 기록을 남기며 그를 기리고 있다. 이 비문의 저자는 왕의 후손이지만, 마치 죽은 자가 글을 쓰듯이 1인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는 죽은 자 솔로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죽은 자 솔로몬의 지혜는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계속해서 아람어로 기록된 북서셈어조약 비문 스피르 IC5에서 “해 아래에서”(תחת שמש)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⁴⁶ 이 문구는 주전 8세기 중엽의 비문으로 스피르 비문의 첫 번째 비문 중 세 번째 본문의 다섯 번째 줄에 불완전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비문에서 “해 아래에서” 문구는 왕의 통치 의미로 기록되며 삶의 통치영역으로 피정복자가 왕의 통치 영역에서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⁴⁷ 선함은 정복자의 통치 행위이다. 악은 통치자를 대항한다.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판단은 왕의 통치권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스피르 비문의 한 본문은 “해 아래에서”의 개념이 왕의 통치권과 관련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협의했고 기록으로 남겼다: 나 마티엘이 기록한 것

46 H. Donner & W. Röllig, *윗글*, 242.

47 H. Donner & W. Röllig, *윗글*, 243.

은 경고로서 나의 아들과 나의 왕좌를 이어받을 나의 손자들에게 유효했으므로, 그들은 해 아래에서 통치의 가문을 위해서 선을 행할 것이다.”(KAI IC 5-6)

aXmX txT wdb[y atbj]
그들은 해 아래에서 통치의 가문을 위해서 선을 행할 것이다

통치자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다. 왕의 통치는 선과 악을 통하여 자신의 통치 영역을 관리한다. 전도서의 왕은 선과 악이 세상에서 일반이므로 모든 것이 헛됨으로 이해된다. 지혜의 영역에서 왕의 지혜는 통치의 권한을 넘어서서 보편적인 지혜의 영역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전도서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이다. 이러한 본문들은 적어도 지혜서의 연대 문제에 상한선(terminus a quo)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하나님을 경외”의 의미와 역할

전도서는 다양한 잠언의 양식들, 수사적 양식들 등 고대 이스라엘 전통적 지혜들을 계승하였고 일상으로의 보편화 작업을 통하여 대중적인 지혜를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다.⁴⁸ 이런 점에서 전도서의 뼈대는 전통지혜의 사고가 중심이 된다. 그 중심은 변화의 사고들을 어떻게 수용할까에 대하여 고민하였고, 새로운 사고를 수용하며 새롭게 적용할 때, 전통 지혜를 버리지 않고 매우 비판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3:14;

48 오민수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서술형 사고패턴”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제20권 4호 (2014), 304.

5:7; 7:18; 8:12, 13; 12:13)이다. 앞에서 소개하고 있듯이, 구성사적으로 전도서의 중심부(5:1-7)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중요한 개념으로 소개한다. 전도서 5장 1-7절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을 경외”는 2인칭 단수로 표현되고 있으면서 학교 지혜의 장르로서 등장한다. 이 문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전에서 서원 예물을 드리는 예배의 현장을 배경으로 소개하고 있다.

신명기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4:10; 6:2, 13, 24; 8:6; 10:12; 13:4; 14:23; 17:19; 28:58; 31:12; 31:13) 신앙을 학교 지혜의 사고로 언급하면서 미래 자녀들에게 배우고 가르칠(למד) 것을 요구한다(6:2; 31:12, 13). 신명기는 이 지혜 사고를 언약 전통과 접목시키면서 전체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적어도 신명기의 언약 전통은 6장 4-5절과 13장 그리고 28장의 주요한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다.⁴⁹

신명기 6장 13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는 맹세의 의미로 교육한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신 6:13). 이 문단에서 ‘하나님 야웨 경외’는 6장 4절과 연결되며 6장 6절의 선언 말씀은 2인칭 단수로 소개되면서 “마음에 새기도록”(היה על לבבך) 당부하고 있다. 이 당부는 7절에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하나님 야웨 경외’ 신앙은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신 6:14), 13절에서 야웨를 섬기는 것으로 다시 강조한다(신 6:13). 이어 신명기 13장의 ‘하나님 야웨 경외’는 신명기 12장 신명기법의 배경 위에서 연결되고 있고, 이 법

49 신명기 전체 구조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U. Rütterswörden,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82-88. 신명기 6장과 28장의 조약 전통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_____,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제52집 (2014년 6월), 42-72.

은 신명기 28장과 연결되는 조약 양식으로서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⁰

특히 왕의 법(17:14-20)에서 언급하는 ‘하나님 야웨 경외’는 왕 역시 배움의 자리에 참여함을 가감 없이 소개하고 있다. 왕의 법에서 ‘하나님 야웨 경외를 배우기’(신 17:19)는 왕이 율법을 통해서 배워야 할 규정에 포함된다. 신명기에서 왕은 율법 아래에 있다. 계속해서 언약 전통의 마지막 틀로서 신명기 28장 58절은 언약 양식의 조건부 형식으로 기록하면서, “순종과 불순종”의 주제를 ‘하나님 야웨 경외’와 연결시켜 신명기의 지혜 전통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명기는 늘 ‘하나님 야웨 경외’라고 표현하면서 독특한 신명기 신앙의 색채를 드러낸다. ‘하나님 야웨 경외’라는 이 지혜 전통은 북서셈어 문화권의 조약 전통과 가깝고 이어 신명기의 계약 전통은 이를 이어받고 있으며, 전도서의 ‘하나님 경외’에 대한 교육의 의미는 신명기의 학교 지혜와 매우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전도서의 ‘하나님을 경외’의 표현은 오경 안에서 제사장계 이후 (Post-Priestly)의 본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함’은 5장 6절⁵¹에서 제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런 점에서 오경의 말락(사자) 본문(Mal’ak-Text)과 시대적 사고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변곡점 본문(5:1-7)의 시대적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다.⁵² 다음의 표를 통하여 전도서의 ‘하나님 경외’(יִרְאָ אֱלֹהִים) 사상이

50 Ch. Koch, *Vertrag, Treueid und Bund. Studien zur Rezeption des altorientalischen Vertragsrechts im Deuteronomium und zur Ausbildung der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BZAW 38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51 마소라 본문(MT)은 5:5로 표기. 오경의 말락 본문과 신명기사가 이후 본문의 구성에 대해서 다음을 참고하라. E. Blum,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lag”, M. Vervenne and J. Lust (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cal Literature* (Uttgeverij Peeters &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93.

52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본문은 말락 본문과 매우 밀접한 본문이며, 오경 구성에서 이 본문은 Post-P와 Post-drt의 병합 본문으로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창 22:11 네 입으로 네

어떻게 사경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창 22:12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 이삭
창 31:42	선조의 하나님 경외
창 42:18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
출 1:21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
출 20:20	십계명 준수와 하나님 임재
레 19:14	성결한 삶의 신앙
레 19:32	성결한 삶의 신앙
레 25:17	성결한 삶의 신앙
레 25:36	성결한 삶의 신앙
레 25:43	성결한 삶의 신앙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하나님 경외’로 소개한다(창 22:12).⁵³ 여호와의 명령으로 시작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확신으로 마친다. 이 본문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배경이며, 모리아 산은 역대기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건축한 야웨의 전이 있었던 곳으로 소개한다.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제2성전시대 이후의 하나님 경외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요셉 이야기(창 42장)도 이스라엘 밖에서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기록하고 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형제들에게 말하지만, 형제들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 말 2:7에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 칭한다.

53 M. Köckert, “Gen 20-22 als nach-priesterliche Erweiterung der Vätergeschichte”,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157-176.

은 이방 사람으로 알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에 놀라지도 않는다. 최근의 오경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이야기의 흐름은 제사장계 이후(Post-P) 또는 신명기계 이후(Post-dtr)의 본문으로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한다.⁵⁴ 출애굽기 1장 21절에서 엘로힘 본문은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 주제가 이스라엘 밖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한다.⁵⁵ 이는 제사장계 이후 신앙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허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제사장계 이후의 본문으로 소개되고 있는 성결법(레 17-26장)에서 ‘하나님 경외’는 사회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레 19:14, 32; 25:17, 36, 43). 이러한 엘로힘(אלהים)계 신앙은 이방인의 신앙고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⁵⁶ 결국 ‘하나님 경외’ 이야기들은 오경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비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밖에서 ‘하나님 경외’ 신앙을 강조하는 사경 또는 육경(혹은 구경)의 통합 편찬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전도서의 보편주의적 사관(전 1:2)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전도서의 저자는 비제사장 계열의 ‘하나님 경외’ 사고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로의 접근을 시도한다. 특별히 5장 6-7절의 의미는 과연 ‘하나님 경외’ 사상을 강조하는 것인가? 구성사적으로 볼 때, 이 변곡점 본문은 ‘사회비판’(3:16-4:16)과 ‘일반(הקרבן)’(5:8-6:9) 본문을 통하여 오랫동안 사회 저변에서 견고하게 유지했던 “행위-결과”에 대한 사고를 강력하게 비판한다. 전도서 5장 6절의 기록(“네 입으로 네 육체가 범죄 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54 Th. Römer, “The Joseph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Pre-P or Post-P?”, F. Giuntoli and K. Schmid(eds.), 윗글, 185-202.

55 J. Scharbert, *Exodus*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15.

56 R. Achenbach, “How to Speak about GOD with Non-Israelites. Some Observations about Use of Names for God by Israelites and Pagans in the Pentateuch”, F. Giuntoli and K. Schmid(eds.), 윗글, 35-52.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은 서원한 것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서원을 거두려는 자가 있음을 비판한다. 본문은 제의와 관련한 서원의 문제를 비판하면서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만큼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전도서 8장 12-13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나 죄인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할 수 있으나(8:12),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따라서 악인들의 상과 의인들의 벌은 모두 헛되다. 그리하여 5장 6절 후반부에서 “어찌”(אָמַל)로 시작하는 의문형은 어느 정도 비꼼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⁵⁷

위 도표에서 보듯이, 전도서의 교차대칭구조에 나타나는 “하나님 경외”는 “인간론” 주제에 위치한 하나님 경외 사고(3:1-15)가 일반지혜 비판의 본문인 8장 10-15절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유대교의 전통 지혜와 헬레니즘 지혜의 영향 아래에서 지혜의 중심으로 소개되는 전도서의 ‘하나님 경외’ 사고는 전도서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비평 주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나가기

전도서의 지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지혜를 근거로 하여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보편주의적 입장을 받아들인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입장을 구성사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 전도서의 사

57 “아이러니화된 지혜”에 대하여 다음을 참고하라. 구자용, “삼하 11장-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제35집 (2010년 3월), 119-140.

고를 이끄는 중요 주제어(구)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았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다”, “일반(הרבה)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다(יִתְרַאֵם אֱלֹהֵי)” 등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전도서의 특별한 교차 대칭구조에 의하여 잘 구성되어 있다.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의 사용은 북서셈어조약 문헌인 스피르 비문과 페니키아 석판묘에 기록된 비문에서 나타나고 있다. 구조적으로 전도서에서 ‘해 아래에서’라는 문구는 북서셈어조약의 구성과 유사하게 사슬구조(Kettenstruktur) 형식으로 짜여 있다. “내 마음속으로 이르다”라는 문구 역시 북서셈어 문헌인 스피르 비문에서 계약자와 피계약자 간의 순종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는 신명기에서 계약의 내적 장치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지혜 문헌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반(הרבה)”의 구조는 전도서의 교차대칭구조 안에서 기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하나님 경외” 사고는 구성적인 면으로 접근할 때 전도서에서 가장 주요한 비평 주제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구성사적 접근 방법과 전통사적 방법을 통하여 고대 근동의 문헌들과 비교하여 볼 때, 전도서 전체 구조가 특별히 지금까지 잘 소개되지 않은 북서셈어 문화권의 영향아래 있음과 비제사장계(non-P)의 문학 양식과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조를 통하여 전도서는 헬레니즘 영향 아래에 있는 전통 지혜(행위-결과 의 회복)를 비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를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전도자의 갈등이며 현재를 즐기라고 강조하는 새로운 요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참고문헌

구자용, “삼하 11장-아이러니화된 왕의 지혜”, 「구약논단」 제35집 (2010년 3월), 119-140.

www.kci.go.kr

- _____,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카르페 디엠(Carpe Diem)!: 전도서 이해의 열쇠로서의 죽음에 대한 고찰”, 『구약논단』 제43집 (2012년 3월), 82-104.
- 김홍현, “전도서에서 전통 지혜에 대한 비판과 옹호: 두 개의 열쇠어와 전도서 9장 7-10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90집 (2023년 12월), 280-308.
- 뤼디거 룩스, 『이스라엘의 지혜』 (구자용 옮김), (서울: 한국학술정보, 2012).
- 리처드 J. 클리포드, 『구약학 입문시리즈 4: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93), 136-138. 원제는 R. J. Clifford, *The Wisdom Literature* (Interpreting Biblical Textes Series) (Abingdon: Abingdon Press, 1998).
- 배정훈, “전도서에 나타난 잠정적인 지혜”, 『구약논단』 제42집 (2011년 12월), 10-32.
- 안근조, “헬레니즘시대의 지혜의 변천: 전도서를 중심으로”, 『구약논단』 제57집 (2015년 9월), 99-124.
- 에리히 쉐어, 『구약성경 개론』, 이종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12).
- 오민수, “지혜전통의 계승과 혁신: 전도서에 사용된 이른바 ‘서술형 사고패턴’의 유래에 대한 소고”, 『구약논단』 제20권 4호 (2014), 281-310.
- 지크프리트 크로이처 외 지음, 『구약성경 주석 방법론』 (김정훈 옮김), (서울: CLC, 2011).
- 최종원, “복서 셈어에 나타난 계약 본문 안에서의 ‘쉐바’(שֶׁבַע)”, 『Canon & Culture』 제11호 (2012년 봄), 123-152.
- _____, “신명기의 비아르타법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제76집 (2020년 6월), 204-230.
- _____, “신명기의 ‘사랑과 계약’에 대한 새로운 연구”, 『구약논단』 제52집 (2014년 6월), 42-72.
- Achenbach, R., “How to Speak about GOD with Non-Israelites. Some Observations about Use of Names for God by Israelites and Pagans in the Pentateuch”,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35-52.
- Blum, E., “Der Kompositionelle Knoten am Übergang von Josua zu Richter. Ein Entflechtungsvorschlag”, M. Vervenne and J. Lust(eds.), *Deuteronomy and deuteronomical Literature* (Uttgeverij Peeters &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7), 181-212.
- Blumenthal, E., “Die Rolle des Königs in der ägyptischen und biblischen Weisheit”,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H.-P. Müller(eds.), *Weisheit in Israel* (Münster:

- Lit verlag, 2003), 1-36.
- Bohlen, R., "Kohélet im Kontext hellenistischer Kultur", L. Schwienhorst-Schönberger(ed.), *Das Buch Kohé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ZAW 25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155-247.
- Braun, R., *Kohélet und die frühhellenistische Popularphilosophie* (Walter de Gruyter/ Berlin/New York: De Gruyter, 1973).
- Choi, J.-W., *Zur Bedeutung der Zahl Sieben. Eine literar- und kompositionskritische Studie zu den Vorstellungen von Fluch und Strafe im Alten Orient und im Alten Testament* (KAANT 11; Kamen: hartmut spenner, 2011).
- Dell, K. and Kynes, W., *Reading Ecclesiastes Intertextually* (JSOTS 587; Bloomsbury: T & T Clark, 2014).
- Donner H., & Röllig, W., *Kanaanäische und aramäische Inschriften, Band II* (Wiesbaden: Otto Harrassowitz, 1964).
- Fox, M. V., *Qohélet and His Contradictions* (BLS 18; Sheffield: Almond Press, 1989).
- _____, *A Time to Tear Down and a Time to Build Up. A Rereading of Ecclesiastes* (Grand Raapids; Cambridge: Wipf & Stock Publishers, 1999).
- Galling, K., *Der Prediger: Die Fünf Megilloth* (HAT 1/18; Tübingen: Mohr Siebeck, 21969).
- Koch, Ch., *Vertrag, Treueid und Bund. Studien zur Rezeption des altorientalischen Vertragsrechts im Deuteronomium und zur Ausbildung der Bundestheologie im Alten Testament* (BZAW 383;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8).
- Köckert, M., "Gen 20-22 als nach-priesterliche Erweiterung der Vätergeschichte", F. Giuntoli and K. Schmid (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157-176.
- Köhlmoos, M., *Kohélet. Der Prediger Salomo* (ATD 16;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15).
- Krüger, Th., *Kohélet(Prediger)* (BKAT XIX;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0).
- Kustár, Z., "Neue-Sichten-neue Schichten. Skizze einer Redaktionsgeschichte des Buches Kohélet", J. Kotjatko-Reeb, S. Schorch, J. Thon und B. Ziemer(eds.), *Nichts Neues unter der Sonne?. Zeitvorstellungen im Alten Testament* (BZAW 450; Berlin/Boston: Walter de Gruyter, 2014), 279-292.

- Lipinski, E., “šæmæš”, H. J. Fabry & H. Ringgren(eds.), *Theologisches Wörterbuch zum Alten Testament Bd. VIII* (Stuttgart/Berlin/Köln: Verlag W. Kohlhammer, 1995), 306-314.
- Lohfink, N., *Kohelet*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6).
- _____, “Das Koheletbuch: Strukturen und Struktur”, L. Schwienhorst-Schönberger(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ZAW 25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39-121.
- Lux, R., *Die Weisen Israels* (Leipzig: Evangelische Verlagsanstalt, 1992).
- Miller, D. B., *Symbol and Rhetoric in Ecclesiastes: The Place of Hebel in Qohelet's Work* (SBL 2; Leiden/Boston/Köln: Brill, 2002).
- Müller, H.-P., “Kohelet im Lichte der frühgriechischen Philosophie”,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und H.-P. Müller(eds.), *Weisheit in Israel* (Münster: Lit verlag, 2003), 67-80.
- Oh, Minsu, *Sprachliche Gestaltung und Semantik. Untersuchungen zu den biblischen Büchern Proverbien und Kohelet* (Lit 13; Münster: Lit Verlag Dr. W. Hopf, 2012).
- Röllig, W., “Die Weisheit der Könige in Assyrien und Babylonien, D. J. A. Clines, H. Lichtenberger und H.-P. Müller(eds.), *Weisheit in Israel* (Münster: Lit verlag, 2003), 37-53.
- Römer, Th., “The Joseph Story in the Book of Genesis: Pre-P or Post-P?”, F. Giuntoli and K. Schmid(eds.), *The Post-Priestly Pentateuch: New Perspectives on its Redactional Development and Theological Profiles*, FAT 101; Tübingen: Mohr Siebeck, 2015), 185-202.
- Rüterswörden, U., *Das Buch Deuteronomium* (NSK-AT 4; Stuttgart: Verlag Katholisches Bibelwerk, 2006).
- J. Scharbert, *Exodus* (NEB;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15.
- Schwienhorst-Schönberger, L.(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ZAW 25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 Schwienhorst-Schönberger, L., *Kohelet* (HTHKAT; Freiburg im Breisgau: Verlag Herder, 2004).
- Seow, Ch.-L., *Ecclesiaste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18C; New York: Doubleday Religion, 1997).

- Sneed, M. R., *The Politics of Pessimism in Ecclesiastes. A Social-Science Perspective* (SBL; Atlanta: SBL, 2012).
- Uehlinger, Ch., “Qohelet im Horizont mesopotamischer, levantinischer und ägyptischer Weisheitsliteratur der persischen und hellenistischen Zeit”, L. Schwienhorst-Schönberger(ed.), *Das Buch Kohelet. Studien zur Struktur, Geschichte, Rezeption und Theologie* (BZAW 254; Berlin/New York: Walter de Gruyter, 1997), 155–247.
- Willmes, B., *Menschliches Schicksal und ironische Weisheitskritik im Koheletbuch. Kohelets Ironie und die Grenzen der Exegese* (BThSt 39;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2000).
- Witte, M., “Das Koheletbuch (Der Prediger Salomo),” J. Ch. Gertz(ed.), *Grundinformation Altes Testament* (UTB; Vandenhoeck & Ruprecht, 2007), 457–464.
- Zimmerli, W., *Das Buch des Predigers Salomo* (ATD 16/1, 2;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검색어

전도서의 구조, 복서셈어문학, 비제사장계 문학사, 일반, 해 아래에서, 마음속으로 말함, 하나님 경외

[ABSTRACT]

A New Study on the Book of Ecclesiastes from the Perspective of Northwest Semitic Literature and Non-Priestly Literary History

Jong-Won Choi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wisdom of Ecclesiastes accepts the universalist position that “everything is vain” based on the traditional wisdom of Israel and criticizes traditional wisdom through new eras and ideas. The direction of research on Ecclesiastes so far can be organized into five themes. These are (1) the structure of Ecclesiastes, (2)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3) comparison with the canon, (4) issues of the history of interpretation of Judaism and Christianity, and (5) the direction of appro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and theology. In general, in the history of literature, research on the wisdom of Ecclesiastes has been actively conducted in connection with Egyptian, Mesopotamian, and early Hellenistic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the content of Ecclesiastes begins with ‘vainness’ (1:2) and ends with ‘vanity’ (12:8). These enclosing frames meaningfully present the overall structure of the text. In particular, the literary core point of Ecclesiastes is Ecclesiastes 5:1-7. Focusing on this part, the ‘call to joy’ is emphasized in the latter half of Ecclesiastes (5:17-19; 9:7-10; 11:9). This trend is newly proposed through several key words that suggest the central thought of Ecclesiastes. The keywords can be summarized as “I saw (again) under the sun,” “I said in my heart,”

www.kci.go.kr

“Happening,” and “Fear God.”

These topics are well structured by the special cross-symmetry structure of Ecclesiastes. The use of the phrase ‘under the sun’ appears in the Sefire inscription, a Northwest Semitic treaty document, and an inscription recorded in a Phoenician sarcophagus. Structurally, the phrase ‘I saw (again) under the sun’ in Ecclesiastes is structured in a symmetrical structure. The phrase “I said in my heart” also connotes the meaning of obedience between the contractee and the contractor in the Sefire Inscription, a Northwest Semitic document, and expresses the listener’s decision. This is used as an internal device of the contract in Deuteronomy and shows a correlation with Wisdom literature.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Happening(מִקְרֵה)” is applied in a chain structure format and a cross-symmetrical structure,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Northwest Semitic Treaty. Lastly, within the structure of Ecclesiastes, the concept of “fear of God” is closely related to the thinking of the non-priestly text of the Pentateuch.

As a result, this thesis, when viewed through a compositional historical approach and a traditional historical method, shows that the entire structure of the book of Ecclesiastes is particularly under the influence of the Northwest Semitic language, which has not been well introduced so far, and in particular the literary style of the non-priestly (non-P) world. Of course, in terms of content, it seems clear that the book of Ecclesiastes attempts to communicate its wisdom characteristics with the ancient Greek culture, while attempting to resolve the fundamental thoughts underlying the book based on Northwest Semitic tradition and Deuteronomistic religious thinking. Through this structure, Ecclesiastes criticizes traditional wisdom while simultaneously trying not to let go of the fundamental idea of “the fear of YHWH.” This is the evangelist’s conflict, accompanying the new request that emphasizes the enjoyment of

the present.

key words

Structure of Ecclesiastes, Northwest semitic literature,
Non-priestly literary history, Happening, under the sun, Speaking in my heart,
Fear of the LORD

투고일: 2023년 01월 11일

심사일: 2024년 02월 04일

게재 확정일: 2024년 02월 20일

www.kci.go.kr